在日大韓基督教会
宣教80年을 향한 標語

1. 새 세대에 교회를 형성하자
2. 재일동포의 새로운 삶을 지향하자
3. 세계역사속에서 우리의 사명을 다하자

福音新聞

THE GOSPEL NEWS

4月15日(火) 〈1980年〉 第364号

発行所 福音新聞社
160 東京都新宿区西早稲田2—3—18
電話 03(202)5398番
編集人 金君植

毎月1回 15日発行 購読料 1部 50円
昭和38年9月20日第3種郵便物認可
印刷所・青丘文化社

日北美宣教協力会総会
教会의 宣教、人権討議

日北美宣教協力会(JNAC)一九八〇年度全体会議が三月三十一日から四月二日まで東京・日本基督教団会議室で「宣教に於ける主題の下」で開かれた。

JNAC総会は加盟団体の現況報告が行なわれ、本総会としては KCCの新計画 RAIK 青年婦人の指導者養成問題等を報告されたが、一世の信仰の遺産を後世に継承する問題に関して、教会が自立の精神を確立する問題に関して、民族教会の自立の問題に関して、共に重大な使命を持っていることを確認した。

JNACは教会堂建築に援助を行なうプロジェクトに対して積極的に協力することを決定した。

北米教会代表と関東地方会代表との懇談会が三月二十八日(金)午後七時、新築の東京教会で行なわれた。日北米宣教協議会に出席した北米教会代表は、訪問した教会を個別的に見て回り、意見を交換した。

JNAC総会に参席した代表ら

下関教会와 教団山口西
分区教会 合同礼拝盛況

下関教会(申鉉錫牧師視務)と日本基督教団山口西分区との合同礼拝が三月十六日(日)午前十時半、下関教会に約二百三十余名が集まり盛況裏に行なわれた。

申鉉錫牧師の司会、小幡慶助牧師(教団下関教会)と申鉉錫牧師の司式のもとに聖餐式が行なわれ、李仁夏牧師(川崎教会)の説教「自分を愛するように」(本文ルカ十章25~28)韓日合同聖歌隊の讃歌、幼児洗礼式等聖霊充満な中で行なわれた。

第二部は佐賀伝道教会長老山中猛士夫妻の尺八と琴の演奏、申鉉錫牧師の独唱等で新しい雰囲気の中で楽しく過ごした。

下関教会と教団山口分区諸教会との合同礼拝を通して、教会の交流を深めるとともに、教会の使命を共に担うことを確認した。

下関教会と山口分区諸教会は、合同礼拝を持つ為の準備段階に入り、下関市内に共存する教会の交流を深めるとともに、共に歩んでいくことを確認した。

在日韓国教会의 神学모색
関東・中部教役者会서

関東・中部地方会教役者研修会が四月八・九両日熱海・椿山荘で行なわれた。

JNAC総会は三月二十八日から四月五日まで東京・日本基督教会館で行なわれた。

JNAC総会は尹宗銀総会長の挨拶で始まり、総会は「韓国教会の使命」を主題として、李仁夏牧師の発題、池明観教授の講演、金君植牧師の発題、鄭水吉牧師の発題、崔京植牧師の発題、李海春牧師の発題、金君植牧師の発題、鄭水吉牧師の発題、崔京植牧師の発題、李海春牧師の発題、李仁夏牧師の発題、池明観教授の講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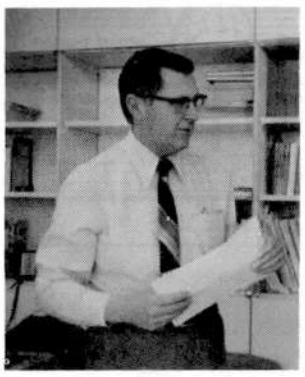
講演

カナダ教会の神学教育（完）

アンダーソン　牧師

牧師を志す青年男女は、自分の土地の教会で牧師や上の方の長老が個人の信仰と献身について質問する、という普通の道順を通してきます。それから、志願者は長老会（プレスビテリイ）に推薦され、そこで試験されて認められれば、そこで初めて勉強することができます。

最初の三・四年の勉強は、教養学科のある大学（カナダではどの大学にもあります）で受けます。長老会によって推薦され、コース、これは、歴史、文学、古典国語、現代国語、神学、哲学、一・二の科学、経済学、政治学を含みます。これは、長老会の管理下にあるべきですが、必ずしもそうではありません。宗教について宗教学科の中に広い選択があります。各々、例えば、アジア、古典又は現代ヨーロッパ、哲学、心理学を専攻します。



学生は卒業すると、神学校に進みます。学生は、まだ長老会の管理下にあり、牧師としての仕事へと継続するものを学びます。

神学校には、日本と同じ位多くの学科があり、必修科目と選択科目があります。必修科目は、旧新約・両方の文学と注釈・旧新約の神学、ヘブル語とギリシャ語の聖書用語があり、又、宗教の歴史と哲学の科目を取ることも要求されます。この中で、キリスト教以外の宗教について詳しく考察されます。又、説教することや、説教そのものの作り方とか、クリスチャン教育（日曜学校）のコースがあります。最近では、ラジオとテレビで、牧師養成のコースをやっています。選択科目には、広い範囲があり、既に述べた様に、専政の学部で専政されます。しかし、他にも、情報についてのコース、臨床分析心理学や牧師相談、病院伝道についての多くのコースか、その他色々あります。

神学生は、各自の神学校の必要条件を満し、試験に合格し、総での割り当てられた論文を提出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それから、神学生は、牧師として聖職を授けられる前に、長老会、特にその審査委員会によって試験されなければなりません。これら総ての試験に合格して、初めてカナダ長老教会の牧師としてふさわしいとされるのです。

しかし、これで終りでなく、現在総ての神学校の卒業生は、よその教会で仕えてもよいと言われるまで、最底三年間、ザ・ボード・オブ・ワールド・ミッション（カナダ教会の宣教部）の下で勤めなければなりません。これらの教会は小さく、都市から遠く離れたものが多く、長い間続けて勤務する牧師がいなかった為に、とても弱いものが多いのです。彼らは、若さ故に、欠点も気軽に許され、逆に経験が足りない為に誤ちを起すことも事実です。自分が生まれるよりも前からクリスチャンであった人々に仕えるということは、人間の可能性を試す真剣なテストです。彼らはまだ長老会の監視下にいます。しかし、既に長老会のメンバーでもありますから、総てのやり方を選ぶのは自由だし、又、総会に出席する志願者となることや、同時に投票することや、理事会や委員会等に出席する志願者になることさえも自由なのです。但し、初期のうちは選ばれないことが多いです。

もう一度、もどって、非公式の「トレーニング」の話をします。カナダでは、四ヶ月以上の長い夏休みがあります。この間、神学生達は、田舎の小さな教会に学生牧師として雇われます。彼らは、部屋と食事と週給制の賃金が与えられ、礼拝を行い、日曜学校を指導し、夏期聖書学校（一週間か二週間、夏の間にあります）を指導することを求められます。そして、教会のキャンプ活動の受け持ちもしなければいけません。彼らは、ここでも又、臨時の大会議長の監視下にあります。大会議長（インターン・モデレーター）は、牧師として指導し、友達あるいは相談相手として、学生一人一人の状態に気を配ります。多くの学生牧師は、これを形式的勉強よりも高く評価しています。

その他の「トレーニング」として、かなり多くの神学生は、牧師の「学生助手」として教会に選ばれます。多くの場合、彼らは夕方礼拝の説教をします。又、お祈りをしたり、礼拝や祈禱会や教会の役員会などでも働きます。勿論、聖餐式や洗礼はできません。それから、青年の集まりで価値ある役割を果したり、教会学校の研究会を教えたりします。これによって、彼らは、経験を豊かにし、聖職者としての責任を確かに受けとめる様になります。

その他の人々は、しばしば、牧師のいない教会に礼拝を指導する為に招かれます。この方法では礼拝を準備することに加えて、学生は教会の違った種類を理解します。例えば、都市・町・村・農村の教会・老若に片寄った構成の教会・一人の牧師が掛け持ちしている教会、教会から教会へ行き来しなければならない所、指導者達のあまりに多い、又少ない所、批判批評の全くない、又それしかない所第々をです。この自らの可能性を試す厳しい試練によって、彼らは自分がどこに向いているかを見い出し、自分の無知を発見し、自分の行いが、神の恵みにいかに多く頼っているかを知ります。

私は、神学校とその管理について主な線に沿って述べました。勿論、いくつかの例外はあります。例えば、もっと年令のいった学生の中には職業経験のある人や、他の教派の経歴のある人もいます。外国人もいます。又ヘブル語・ギリシャ語などの語学のうまくできない人々もいます。教会側は、これらの人々に同情的であり、志願者の可能性に便宜を計ろうとしています。それと同時に、伝道に対する要求にとても忠実です。

これら、総での訓練には一つの結果があります。すなわち、僕として、我々の価値を最後に審判して下さるイエス・キリストの教会の忠実な伝道者になるということです。

総務데스크

3月12日（水）
美国南長老教의　아시아教会視察団과　懇談会를　가짐。金仁植牧師外　4名。

3月24日（月）
亜細亜基督教協議会（ＣＣＡ）教育部幹事　荒井俊次牧師와　ＣＣＡ関係의　留学生派遣에関해　意見을　나누다。

3月28日（金）
Ｅ・로바트牧師（카나다宣教部総務）와　懇談。日北美宣教協議会（ＪＮＡＣ）에　参席中인 北美教会代表들과　東京教会에서　懇談。総会長関東地方会任職員参席。

3月31日（月）～4月2日（水）
日北美宣教協議会（ＪＮＡＣ）総会에　出席。

4月11日（金）～12日（土）
日本基督教団과　韓国三教団（大韓예수教長老会、韓国基督教長老会、基督教大韓監理会）協議会에　参加。

「雑　感」

3月31日부터　4月2日까지　日北美宣教協会（ＪＮＡＣ）가　열렸다。ＪＮＡＣ라고하면　ＫＣＣ、ＲＡＩＫ의　活動을　돕는　資金源과　같이　생각하기　쉬우나　3日間의　総会를　通해서　얻은　느낌은　地理的으로는　바다를　건너　넘은　両国의　教会가　에큐메니칼이란　地平에서서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선교에　参与할　것인가하는　高度의　宣教論을　展開하는　곳이었다。

나는　世界教会와의　連帯를　생각할때　세가지　점에서　에큐메니칼　宣教의　基本問題로서　展開하지아니하면　안될줄안다。

즉　依存과　自立、変化와　交換、認識과　理解이다。할수있으면　ＪＮＡＣ加盟教団의　報告를　福音新聞에　紹介하고　싶다。

各教団의　現状과　問題点은　알수있고　우리의　宣教에　있어서도　参考가　될것이다。우리의　宣教基本政策에　의해　他教団과의　宣教協力의　방안과　具体的　方策을　내　세우지　아니하면　안되겠다。

講壇

믿음을 가지고있는 사람들

《히브리11：1～6》

鄭　永　吉　牧師（岡崎教会）

사랑과 지혜가 있는 그곳에 두려움과 무지는 없읍니다。
인내와 겸손이 있는 그곳에 분노와 흥분은 없읍니다。
기쁨가운데 가난이 있는 그곳에 탐욕과 인색은 없읍니다。
평온과 묵상이 있는 그곳에 불안과 방황은 없읍니다。
자기점을 지키기 위하여 주님께 대한 두려움이있는 그곳에 원수가 침입할 틈은 없읍니다。
자비심과 분별력이 있는 그곳에 과도함과 완고함은 없읍니다。

프란시스의 글이었읍니다。어떤사람이 믿음의 사람들인가 하는것을 말해주는 좋은내용입니다。

신앙의 사람들은 가만히있지못합니다。현세는 사람들을 만나면 自身의 貴한 믿음의 生活을 伝해 주려고 努力합니다。信仰은 무엇보다 소중한 生命力이 되기때문입니다。그첫째 이유는 希望하는 것에 대한 確信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희망하는 것에 대한 確信을 가집니다。

어떤때는 우리의 生의 길이 막막하였다고 생각하기 쉬운때가 있읍니다。되는 일보다 잘 되지 아니한 일이 더 많습니다。되지 않는것이 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은 항상 自身이 없읍니다。그러나 우리의 信仰은 되지않는 것에도 불구하고 苦難과 죽음에도 불구하고 希望을 가진수 있는 하나님께서 希望을 주시는 믿음을 所有하고 있읍니다。

우리의 希望은 보이는것에 국한하지 않습니다。우리의 希望은 보이지 아니하는 世界를 동경하고 希望하기 때문에 보이는 世界로 능가합니다。보이지 않는 世界를 希望하면서 보이는 世界를 아름답게 이기고 나갑니다。

어떤날 걸인이 礼拝途中에 돈을 얻으려고 要請했읍니다。礼拝 끝나고 주겠으니 礼拝부터 드리십시오 했으니 礼拝는 아무 興味가 없다는듯이 가버리고 말았읍니다。그는 分明 믿음같은 보이지아니한 世界는 関心이 없고오직 손에 쥐이는 돈이 必要했읍니다。돈은 보이지 않는 용기에서부터 오게되어 있읍니다。보이는 돈 그것만 생각하면 銀行을 털게됩니다。

우리는 믿음이 必要합니다。하나님의 아름다운 世界를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의 化身인것을 믿으며 우리모두가 兄弟사랑으로 살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둘째 믿음의 사람들은 안된다는 固定観念을 理解와아량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人間을 祝福하실때 人間이 가지고있는 그이니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드리고 自己생각을 変化해가는 課程을 말합니다。

그러기에 셋째 信仰의 사람들은 남을 아프게 하지않습니다。우리는 주님께서 사셨듯이 남을 생각하면서 삽니다。내가 성실하게 사는것은 곧 남을 위한것이고 남을 위한 것은 곧 나를 위한 것으로 알기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남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때 네몸같이 사랑하라（마태十九장十九）고 하셨읍니다。

남을 아프게 하지않는다는 말은 남의 아픔을 느끼고감이 経験하고 그곳에 같이한다는 말입니다。

教会가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構成되었다면 언제고 사람들을 위해서 깊이 있는 福音을 伝하고 그리고 항상 일해야 되는곳입니다。그래야 教会는 山위에 놓이듯한 곳이 될것입니다。

「十字架の言葉は、滅びゆく者には愚かであるが
救いにあずかるわたしたちには、神の力である」

美術箔押印刷

青山ホット工芸

代表　金　太　烋

（西新井教会）

東京都足立区西新井本町四－25－12
電　話（03）896－4083番

旭化成工業株式会社

代表取締役　金　昌　汶
副社長　李　玉　基
専務取締役　金　日　明

本　社　川崎市川崎区浜町２－７－２
☎（044）３２２－３２３０番
３３３－８０６６番
第二工場　川崎市川崎区浜町２－３－６
☎（044）３３３－７９６６番
３３３－７９４４番
第三工場　川崎市川崎区浜町1-10-1-101
☎（044）３３３－３６０９番

プラスチック射出成型加工

㈲三和レジン工業

代表取締役　林　炳　台

川崎市川崎区池上町９番２号
工　場　☎044（２８８）５６３８
事務所　☎044（２１１）３８２８

韓・日四教団協議会開催

総会加入도 論議

韓国三教団과日本教団代表들

日本基督教団과 韓国三教団(大韓예수教長老会、韓国基督教長老会、基督教大韓監理会)協議会가 四月十一・十二両日 東京YMCA에서 열렸다。韓日四教団宣教協議会는 一九六七年 宣教協約을 맺었으나日本基督教団은 内部紛争으로、韓国教会는 時代的인 事情으로 그간 協議会를 갖지못하다가 이번에 모이게된것이다

四教団의 現況報告가 있은후 協約改訂問題등이 있었으나 앞으로 改訂할것을 前提로 具体的인 交流를 実施하기로 하였다。

금번 協議会에는 本総会에서는 金君植総務가 参席했는데 우리総会를 正式会員으로 받자는 意見이 韓日両国教会에서 나왔다。

合意된 事項은 ①在日大韓基督教総会를 포함한 五教団総務레벨에서 필요한 対話를 계속하며 来年初에 総務連絡会를 갖기로했다。春에는 서울에서 代表者協議会를갖는다。그리고 青年、婦人、学校教師、教役者의 短・長期交流、南北統一問題에의 協力、両国教会의 協力으로 다른나라에의宣教協力、教会의 이세상에대한 간증에 協力등이다。

韓国教会代表들은 十三日主日 日本教会에서 説教하고親交를 나누었다。

女性指導者세미나

婦人会全国連合会서

全国婦人会連合会(会長 慶忠重)는 女性指導者養成会를 三月二十四~二十六日、関西学院세미나하우스에서 가졌다。

主題講師에 池明観教授(東京女子大客員教授)를 모셨으며、池教授는 ①基督者의 삶(基督教人의 日常生活) ②教会形成(生命이 넘치는 教会)을 中心으로 参加者에게 깊은 感銘을 주었다。

聖経研究는 洪永其牧師(武庫川教会)와 李海春牧師(岐阜教会)가 担当하여 「宣教의 必要性」「宣教者의 覚悟」등 実践事項을 조리있게 講義하여 뜻 있는 성경공부를 하게 되었다。

요호와 이레

養老院을 위하여

婦人会全国連合会

婦人会全国連合会의 오래전부터의 念願인 養老院建設에 署光이 비쳐 慶忠重会長은 다음과 같은 기쁨의 소식을 発表했다。

本総会안에서는 社会福祉의 一環으로 保育事業에 着手하는 教会가 늘어나고 있으나 老後의 生活問題에는 아직다루지 못하고있는 実情이었다。

◇　◇　◇

全国教会 신앙 어머니들의 祈禱中에 살아있는 養老院問題는 하나님이 準備하신 크신뜻을 보여주셨읍니다。

사람으로는 不可能하나 全能하신 하나님께 속한사람은 可能한 事実을 보여주신 하나님앞에 感謝드리나이다。

教会와 総会를 為하여 숨은奉仕者 金○○長老님은 婦人連合会의 計画을 讃頌하고 貴한뜻을 許諾하심에 対하여 全国婦人会員들은 미리 準備하신 하나님께 讃揚과 感謝를 드리나이다。

따라서 金○○長老님의 献身的인 奉仕에 感謝드리며하나님의 크신 祝福이 더하시기를 祈禱드리나이다。

全国婦人会와 모든会員들은 이일이 이루워지기까지 祈禱로 협신할것이며 物心両面의 献身的인 貢献이 나타나기를 所願하며 필요를 놓겠읍니다。

牧師夫人慰労会

婦人会서 개최

牧会의 일선에서 手苦하는 牧師들을 위하여 숨은 奉仕를 하는 師母님들을 위한 慰労의 모임을 三月二十七、八日 榊原温泉에서 가졌다。

이 모임은 婦人会全国連合会가 처음으로 計画했으며 連合会 慶忠重会長의 干証礼拝로 開会、모인師母님들이 마음에 뜨거움을 느껴 눈물로 기도의 단을쌓았다。

처음에는 一泊二日로 가졌子定이었으나 첫모임이고 또한 획기적인 모임이므로 하루 더갖게되었다。그러나 첫모임이 되어선지 참가자들은 예상외로 적었다。내년도 이와같은 모임을 가질예정인데 많이 参加해줌을 婦人会는 요망하고있다。

春季修養会開催

西南・青年連合会

西南地方連合青年会春期修養会가、三月十八、九両日小倉教会에서 있었다。主題는 "在日大韓基督教会의歴史を学ぶ"で講師に朴憲郁牧師(岡山教会)を迎えた。

今回の修養会を通して、青年たちは、会まで知らなかった本総会について、多くのことを学んだ。参加者は、十八名にすぎなかったが、学ぶこと多く、意義深い修養会であった。

"キリスト者高校生"

関西・高等部春季学校

関西地方会高等部は、春期学校を三月二十三~五日、六甲YMCA研修センター、約三十余名が集まり開かれた。

"キリスト者高校生"として、どう生きるか"をテーマに、主牧に金安弘牧師、聖研で旧約聖書は、崔忠植牧師、新約聖書は、崔正剛講道師が担当した。

開会礼拝は、金安弘牧師が担当、誘惑にかつ高校生(マタイ四章1~11)、二回の早天礼拝も、金安弘牧師によって、歴史と信仰、選びの信仰と使命、そして、開会礼拝説教は、弱者の生き方"であった。

聖研は、旧約はイザヤ書を崔忠植牧師が、ローマ書を崔正剛講道師が担当して、高校生がかかえている悩みに光をあてていた。

신앙증언 간증

카타곰의 발자취

金連伯長老(横浜教会)

人間世界 어느곳을 보아도 암담하고 어두운 그늘만이눈앞에 보이는 現実입니다。

이와같이 希望없는 世界에 今年도 새 싹트는 봄과함께 希望과 生命의 빛을 비추는 復活의節季가 찾아왔읍니다。

이 復活節을 맞이하여 우리의 시들어가는 믿음을 다시 한번 悔改하고 反省하면서復活에 対한 간증과 아울러서 小生의 느낀바를 적어봅니다。

1、主예수님의 復活事件

一般사람들은 사람이 "死亡"할때 「죽는다」고 합니다。그러나 우리信徒들은 「잔다」고 하는 聖書의 말씀을 믿습니다。예수께서 「나는 復活이요 生命이니 나를 믿는者는 죽어도 산다」고 하신대로 고난받으시고 장사된지 3日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살아나신것입니다。예수님의 公生涯가운데 弱者、○○、罪人의 벗이되어서 이들의 代弁者가 되시고 그들을 위해서 싸우다가 当時의 権力者에依해서 十字架에 죽으신읍니다。그러나 무덤이 罪없으신 예수님을 가두어 두지 못하여 三日만에 살아나신 것은 真理이신 하나님의 이동일을世上에 알리신 것입니다。「나사로 살리신 事件(요11・43)」「아이로의 딸 살리신 事件(눅6・54)」등은 모두 우리人間이 善悪間에 마지막날에 復活할것을 보여준 증거인것입니다。(요5・28)이 예수그리스도의 復活의 事件은 非真理를 真理로 나타나기 위함이며 미움과 거짓을 사랑과 진리로 나타내기 위함이요、어두운 世上에 光明을 人類에게 새로운 삶의길을 열어주는 事件인 것입니다。우리의 믿음이 이 復活에 根拠되고 있음을 確信합니다。

2、使徒바울의 復活신앙

바울도 復活하신 主님 만나기 前엔 第一重要한 것이 律法으로 생각했읍니다。이律法을 지키고 伝하기 위해서 全力을 다하였읍니다。

바울의 信仰의 土台는 그리스도復活에 있읍니다。바울의 生涯가 그리스도復活을 거점으로 出発되었고、또 宣教의 内容과 目標가 그리스도의 復活에 근거를 둔것입니다。復活信仰없는 그리스도人의 信仰은 이世上에서 가장 미련하고 비참한 것이라고断言합니다。

바울이 로마、옥中에서도오히려 기쁨과 소망으로 옥밖에 있는 聖徒들을 격려하고 위로할수있었던 것은 바로復活하신 예수의 能力이 바울안에 役事하기 때문인 것입니다。復活信仰에 대한 強한 体験을 通해서 그生涯는 生命의 福音宣教에 목숨바쳐서 従事한 것입니다。

3、우리의 復活신앙

우리가 真心으로 그리스도의 復活을 믿고 体験한다면 바울과같이 소망중에서 強한 믿음을 通해서 그리스도의証人이 될것입니다。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언제나 수심과 걱정에 사로잡혀있지 아니한가! 復活하신 主님을 믿지 못하던 弟子와 같이 権力을 두려워하여 現実에 매몰되어서 活力없는生活을 하고 있는것이 오늘우리의신앙이 아닌가 反省될것입니다。一九七九年3月에 聖地巡回旅行에서 休験한바를적어 봅니다。그것은 「카타곰」동굴에서의 순교자들의 발자취였읍니다。이 「카타곰」에서 많은 信徒들이 生命버리고부서운 迫害를 견디어 勝利할수 있었던것은 다만 復活하신 예수그리스도에 対한 強한 믿음과 산소망以外에 무엇이 있었읍니까? 그들은 復活의 主님能力힘입고 主님말씀 確信하고 기쁨과 감사와 소망중에서 永遠한 世界를 눈앞에 바라보면서 순교했던 것입니다。

우리 教会안에서 사랑과겸손의 모습을 찾아볼수 있을까 의아하게 생각됩니다。오히려 교회안에서 사랑보다미움이、겸손보다 교만이 있지 아니한가 우리도 悔改해야할것입니다。우리가 真心으로그리스도의 復活信仰에 산体験을 가진다면 용서와 사랑과 존경과 和睦이 教会안에 넘칠것입니다。우리의信仰은 입으로만 믿는 신앙、귀로만는는 신앙이 아니라 손과 발과 몸으로 예수를 고백하는 신앙이되어야 할것입니다。

몰트만教授는 말하기를 「復活信仰이 強한 希望을 가진者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福音을 위하여 全力을다하는 삶을 살지만 믿지 못하는 者는 시들고 말것이다」라고 한바 있읍니다。우리는 復活節을 맞하여 고통과 죽음의 世界에서 現実에만 몰두하여 참希望을 알지 못하는 百姓에게 참소망의길、참삶의길、復活의 기쁜소식을伝할 責任과 義務가 있다는事実을 銘心해야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復活은 人類에게 있어서 참自由와 希望과 비전을 줍니다。그리스도의復活의 事件은 죽음의 어두운 그늘에서 방황하는 人間에게 生命의 길을 알려주는 最大의 기쁜 소식입니다。

金本海運
(創業1934年)
代表 金連伯
横浜市中区西の谷23
電話 045(623)4141

運輸省認可
新盛運輸
代表取締役 金哲淳
事務所：東京都港区新橋3-13-3富士第二ビル
電話 03(436)1036番
自宅：横浜市神奈川区六角橋3-4-7
電話045(491)5955番

Coffee Shop
喫茶シオン
李永欽
横浜市南区高根1-3
話話 045(252)6999
(231)1860

아세아의 宣教를 논의

美国南長老教代表와

美国南長老教会国際宣教部代表와의 懇談会가 三月十二日（水）午後二時三十分、早稲田奉仕団会議室에서 가졌다。

美国長南長老教代表들

同宣教部의 企画 및 戦略의 D・영幹事、아세아 및 太平洋地域幹事인 김인식목사등 代表五名이 来訪、本総会는 金君植総務、崔京植牧師、안더슨목사、姜栄一牧師가 参加했다。

同代表들은 아세아의 諸教会를 訪問하면서 実情을 파악하여 앞으로의 아세아宣教에 이바지하고자 아세아지역을 訪問中이었다。

이모임에서는 金君植総務로부터 在日韓国人의 状況、在日韓国教会의 宣教的使命、後輩의 지도자양성、日本教会와의 関係등의 説明이 있은후 서로가 意見을 交換했다。

献身礼拝開催

西南・青年連合会

西南地方連合青年会の献身礼拝が、二月二十五日（日）午後六時三十分、小倉教会に約三十余名が参加してもたれた。

献身礼拝は、崔昌華牧師の説教、李永俊西南地方青年会長の証し、四名の青年の祈り、「祖国の統一のため、当地方会青年会のため、カンボジアの難民のため、在日同胞のため」があった。李永俊会長の証しは、出席した青年会員に、深い感動を与えた。

礼拝の後は、小倉教会の若婦人の心づくしの手料理に舌鼓を打ち、なごやかな一日を終えた。

（通信　申鉉錫牧師）

RAIK理事長選任

李永欽長老

在日韓国人問題研究所（所長李仁夏）は三月六日、理事会を開催し、新理事長に李永欽長老（横浜教会）を選出し、李永欽長老の総会の認准を受けることを決定した。

理事長呉允台牧師の定年隠退に伴い、在日韓国人問題研究所は、新理事長を選出し、新体制の確立のため、李永欽長老に就任を要請中、李永欽長老は、就任を承諾した。

李永欽長老は、在日韓国人問題研究所の会計監査として、RAIKの関係を、十年間、就任されたので、今後、理事長に就任されたので、今後、ますます活躍が期待される。

1970年代韓日神学界の民衆論（四）

鄭賀恩教授（西ベルリン大）

聖書では民衆概念が二種類に表現されている。一つは「ラオス」であり、もう一つは「オクロス」である。「ラオス」は宗教や社会集団の内部で保護を受ける権利を持つ国民という意味に通じる。教会でいう「ラオス」も又、神の民として教会のあらゆる宗教的権利を保護された人々をいう。ところが「オクロス」は宗教や社会団体から、そして国家の保護からも除外された大衆である。注目すべきことに、イエスを囲む群衆は「ラオス」ではなく「オクロス」であったことが、最初のイエス伝であるマルコ福音書に記録されている。『「オクロス」〃彼らこそ重荷を負った者達だ。概成社会から罪人の烙印を押された者達だ。失なわれた羊の群れだ……街の大路と路地とを徘徊する不具者達、盲人達、足なえ達だ。……日が暮れても仕事場もなく街角をさまよう失業者達、貧しい者達だ、腹をすかせ、ぼろをまとい、悲しく痛哭する者達だ。』昼夜を区別することもできない監房で押さえつけられ、閉じこめられ、迫害を受けて死んでいくもの達だ。社会的に出さる顔も名前もないもの達だ。彼らが組織しようとするすべての運動は死の道を招き寄せるだけなのだ。彼らは明らかに「第四階級」に属している。イエスはその「第四階級」に属していることを自認した（安炳茂"民族・民衆・教会"『基督教思想』一九五四、四）。

韓国で論議される民衆概念も又、以上のように対立的な意味を持っている。封建主義時代には支配階級以外の民衆を百姓・庶民・平民等と呼び、李朝末葉から日本帝国主義の没落に至るまで、我々は長い間外勢の侵略と威嚇の下にあった為に他民族から我々の民族を守る為に民衆より「民族」という概念をより多く使用した。従って民族という概念は常に対外関係から形成された相対的概念として使用されてきた。それも虐げを受ける民族として、外勢に虐げられた被支配層大衆の総称であった。

解放後、韓国はそれまで使ってきた「民族」という概念の代りに「国民」という表現を使い始めた。国を持つ大韓民国国民であることを非常に誇り高く考えたからである。しかし、絶対多数の民達・大衆は、国家からの愛護と恩恵を受けるよりは、反対に政治的制約の下で言論権・労働権・政治権等から疎外されてきた為に、一九七〇年代初頭からは「国民」という概念を使うよりも、むしろ「民衆」という用語をより愛用するようになった。

「民衆」とは、国家の保護を受けるよりは人権を蹂躙されてきた疎外される群衆の総称でもある。最近の表現を借りれば、〈人権が蹂躙された者〉達の集団的な実体性を示めす概念でもある。彼らは大体において、社会階層及び社会構造上、特権層中心の構造悪により苦しめられている者達である。それだけではなく、政治的排外構造の中で差別を受ける者達である。

〈民衆〉は明らかに人間群を指し示すものではあるが、漠然と何の規定もない人間を意味するものではない。歴史のどの時期においても〈民衆〉という時は、非人間化されたその社会状態に対して義憤を感じて抵抗し、闘争する歴史的普遍性を持つ存在を指し示すものである。民衆は歴史のあらゆる段階において普遍性をもって存在してきたのだが、その普遍性の因子は果たして何なのか？わが国の歴史からよりも、世界史的立場から最も多く論議されてきた十八世紀末のフランス革命を例にとってみよう。

案内

◎呉允台牧師元老牧師推戴式

東京教会は呉允台牧師の元老牧師推戴式を、五月十八日（日）挙行する。

◎調布教会献堂式

五月二十五日（日）挙行。

◎住所変更

折尾教会新住所

郵便番号　八〇二一

北九州市八幡西区日吉台一—二—三

또 하나의 発見

（一）

池明観教授（東京女大）

一九六七年가을부터 約一年동안 뉴욕에있은 일이 있다。그후 나는 서너번 美国을다시 찾을수있는 機会도가졌었다。그러나 이번처럼 美国안에 形成되고있는 韓人教会에 깊숙히 接触해 본적은없었다 大都市에서는 어디를가나 韓国人의 모습을 길거리에서쉽사리 発見할수있었다。그것은 十余年前 내가 美国에머물러있을때와는 너무도 엄청나게 다른양상이었다。한국을 떠난지 七年동안 맛볼수 없었던 우리나라음식을 로스앤젤스에는 나는 놀라움마저 느꼈다。그 어느 서울뒷골목에서나 맛볼수있던 순대국도 있는것이 아닌가。

日本에서도 불고기집이 流行인것은 事実이다。그러나그것은 이미 韓国맛을 잃어버린 불고기집에 지나지않는다。거기서 韓国맛이 通用되지않는것처럼 그飲食은 본고장의 맛을 잃은지오래다。민대띡이나 순대국같은것을 어디에서 찾아볼수있다는것인가。그럼에도不拘하고 그것은 大部分이 韓国僑胞가 経営하는 韓国飲食店이었고 韓国飲食인에 틀림이없다。

一九七二年늦은가을 日本으로 온以後에 나는 우리韓国僑胞라는 特殊한 少数民族이 日本땅에서 고민하는삶을 継続하고있는것을 처음으로 実感을가지고 発見하였다。서울에있을때도 在日僑胞의 存在는 알고있었지만 그것은정말 抽象的인것에 不拘하였다。八五万名이나 된다고하지만 그것은 祖国의言語도 文化도잃어버리고 머지않아서 日本속에 잦이들어갈 사람들에 不拘한것이라고 생각했었다。

나는 그들을 実際에있어서 만나해보려고있었다。그리나日本滞在가 길어질에따라서 民族의問題가 그렇게簡単하지않음을 깨달았다。그리고는 오랜세월 消滅될수없는 少数民族으로서의 僑胞의삶이 어떤것이며 어떻게되어야하는가를 생각하지 않을수없게 되었다。

그들은 祖国을잃어버린 사람들이 걷고있다。비록 南北分断과 흔히 어두운政治的現実때문에 그祖国을 자랑하지는 못한다하여도 그祖国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떠날수없었다。마치 많은 日本飲食을 즐기면서도 저물고기와김치의맛에 향수를느끼는것처럼 아니 祖国이 그렇게 떳떳하지못하기때문에 그들의 아픔으로서 아무리 잊어버리려고 하여도 어쩌면 지병처럼 되살아나곤 한다고도 말할는지모른다。病은 子女에 対한 사랑은 한층더 強烈한것이 아닌가、이런 在日僑胞를 発見하였을때 나는 내民族에 대한 생각이 크게拡大되는것같은느낌을 가지지 않을수 없다。人間이란 죽도록배우고 끝없이 自己修正을 加하는 存在라고 할까。

그래서 日本에있어서의 이六五万의 韓国人이 存在하는 意味를 분계되었다。少数民族은 政治的인権力을 指向하기보다는 그고민어린生活속에서 文化를 産出한다。支配하고抑圧하는者의 文化는 언제나自己들의 民族이나 階級을떠나 기어올라 歴史上 抑圧받는少数民族이 자아내는 文化는抑圧하는 多数의文化보다 훨씬 普遍的이다。그것은 한층 더 真理에 가깝고 世界的이다。

追放당한것같은 少数의意味는 이런데 있는지모른다。이스라엘의文化란 그런것이아니었던가。流浪한 많은유대인 知識人들이 그런文化를 남긴것이 아닌가。

在日僑胞도 그러는으로 바라봐야하지 않을까하고 생각하게되었다。그렇게되면 그것은 유니크한立場에서 日本社会에도 그리고祖国에도 이바지하는것이 아니겠는가。그런意味에서 나는 요즘 僑胞사이에서엉어나는 文学같은것도 注目하여야한다고 생각하였다。그리면서 日本사람들사이에서 読者를 찾는것以上으로 僑胞自体의文化로 그들사이에서부엊보다도 感動을 불러일으키고 運動의 씨마리가되어야한다고 強調하였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나치게 南北政治에 依하여 政治化되고 分裂하였던 그들사이에새로운 아이덴티티와 인데그리티를위한 갈망이 솟아나고있는것이 아닌가고 評価하였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流浪의유대인들이 그고장言語를 使用한것처럼 우리祖国의 言語를 쓰지않아도 그것은 韓国文化라고 나는 強調하려고하였다。

이때 나는 다만한가지 注文을 부치는것을 잊지않았다。이스라엘民族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을때를 例로들었다。그것은 가난나고 작은 언제나 주위의 巨大한国家로부터 抑圧받아온 이스라엘사람들의눈으로보면 너무나巨大한文明이고 文化였다。그렇기때문에 그들은이제 그奴隷生活에서 絶望하는수밖에없었다。그運命에서 벗어난다는것은 생각할수도없는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神의 啓示에 接했을때 그것은 罪悪의運命이고 自己들은 選民이라고確信하게되었다。여기에서 그들은 그抑圧하는者들의 文明을 두려워하지않았고 文明에隷属됐던 一種의 奴隷根性이나敗北感에서 살아날수있었다。이것은 日本社会가 韓国보다낫다고 생각하고 그것에隷属된 意識状態에서는 少数民族이普遍的인文化를 자아낼수없는것이라고 말하기위해서였다。마치 黒人들이 白人文明에 向하여 그罪悪性을指摘하고、自己들이 지니고있는 루우쯔의 偉大性을 発見했을때 主体的인 文化創造의 可能性이 생겨나는것과 마찬가지다。

㊫松永製菓株式会社

本社　愛知県小牧市大字西之島330
電話（0568）72—1211～5
営業所　名古屋市西区児玉町1—6
電話（052）531—1180

不動産業務全般

免許番号・愛知県知事①第5426番

太栄企業株式会社

代表取締役　金光洙

事務所　名古屋市熱田区八千代通3丁目11番地
（名古屋市中央卸売市場入口南側大栄ビル）
電話　052（682）1177㈹
自宅　名古屋市千種区御影町2—55—5
電話　052（771）4398

食品・薬品包装業

有限会社加富利産業

代表者　金漢弼

東京都足立区西新井本町4—25—12
電話03（890）0951番㈹